

보도시점

2026. 8. 7.(금) 9:00

배포

2026. 8. 6.(목)

기후부 장관, 여름철 폭염 대응 전력수급 운영 현황 점검

- 폭염과 열대야 지속될 경우 역대 최대전력수요 97.1GW 경신 가능성
-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전력설비 현황, 추가 예비자원 등 집중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전남 광주 나주시 소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유관 기관과 함께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8월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역대 최대전력수요(97.1GW, '24.8.20)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력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 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유관기관은 전력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한 곳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설비가 고장날 경우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복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폭염에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 상황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라며, “무리한 야외 작업을 지양하고 충분한 휴식과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 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민석 (044-203-3886)



1. 개 요

- 일 시 : '26.8.7.(금) 09:00~09:50(50')
- 장 소 :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로 625
- 참석자
 - (기후부) 장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 주요 내용 : 폭염에 대응하여 전력수급 운영 현황 등 점검

2. 세부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09:00~09:03 (3')	· 모두발언	기후부 장관
09:03~09:15 (12')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	
09:03~09:06 (3')	① 「여름철 기상 및 전력수급 전망」	한국전력거래소
09:06~09:09 (3')	② 「송배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한국전력공사
09:09~09:12 (3')	③ 「발전설비 안전운영 계획」	한국남부발전
09:12~09:15 (3')	④ 「원전 안전운영 계획」	한국수력원자력
09:15~09:30 (15')	· 참석자 토론	
09:30~09:40 (10')	· 현장 이동 (회의실→중앙관제센터)	
09:40~09:50 (10')	· 전력수급현장 점검	